

얀바루 국립공원

얀바루 국립공원은 2016 년 9 월 15 일에 설립되어 일본에 있는 35 개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정된 국립공원 중 1 개입니다. 오키나와 본토 북단에 위치하고 21,022 헥타르에 달하는 이 공원에는 해도 곳 주변의 깊은 산림에 덮인 산들, 험난한 절벽, 구멍이 많은 다공질의 카르스트 지형, 계사시가와 하천 하구의 맹그로브 숲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아열대림은 같은 위도(북위 27 도 부근)에서는 흔히 볼 수 없습니다. 얀바루는 멕시코 북부, 리비아 사막, 인도 북서부 등, 보다 건조한 지역과 동일한 위도에 위치합니다. 계절풍과 난류인 구로시오로 인하여 지역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그 덕분에 높은 키의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 sieboldii*)라고 알려진 브로콜리와 비슷하게 생긴 잣밤나무, 큰 양치식물 및 매우 희귀한 소형 난 등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었습니다.

얀바루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아시아 대륙과 일본 본토에서 고립된 긴 역사가 있어서 고유종이 된 것입니다. 얀바루의 면적은 일본 총면적의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에는 일본 조류종의 약 1/2, 개구리종의 1/4 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얀바루쿠이나(일본에서 유일하게 날지 못하는 새) 또는 오키나와딱따구리 등 멸종위기군종의 일부는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해 현재 보호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육지와 바다의 자연환경은 언제나 얀바루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원 공급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얀바루의 산림에서 얻은 장작, 숯, 목재는 역사적으로 현지 사용과 오키나와 본섬의 다른 지역과의 거래 모두를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얀바루 지역은 과도하게 산림을 이용했던 시기를 경험했지만 최근에는 훨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역사회는 야생생물 보호 및 침입 동식물의 침입 방지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얀바루 국립공원에서 투어, 트래킹, 캐니어링, 카약, 동물 관찰 등의 액티비티를 통하여 이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자연환경과 활기 찬 문화를 체험하고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